



No. 2022-288
품목 영유아 조제유
(Infant Milk Formula)
HS CODE 1901.10-1090
국가 인도(India)



C.O.N.T.E.N.T.S

I	시장 현황 및 통계	3
	1. 시장 규모 및 현황 2. 수출입 통계	
II	트렌드	10
	1. 소비 트렌드 2. 빅데이터 분석	
III	유통	15
	1. 유통구조 2. 주요 유통채널 분석 3. 라벨링 4. 위생요건	
IV	통관 및 인증	27
	1. 통관 및 검역 2. 인증	
V	시사점	30
	1. 수출 확대 방안	

I

시장 현황 및 통계



01 시장 규모 및 현황

인도 이유식(baby foods) 시장 규모

2021년 인도 이유식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8.9% 증가한 8억 7,31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6.5%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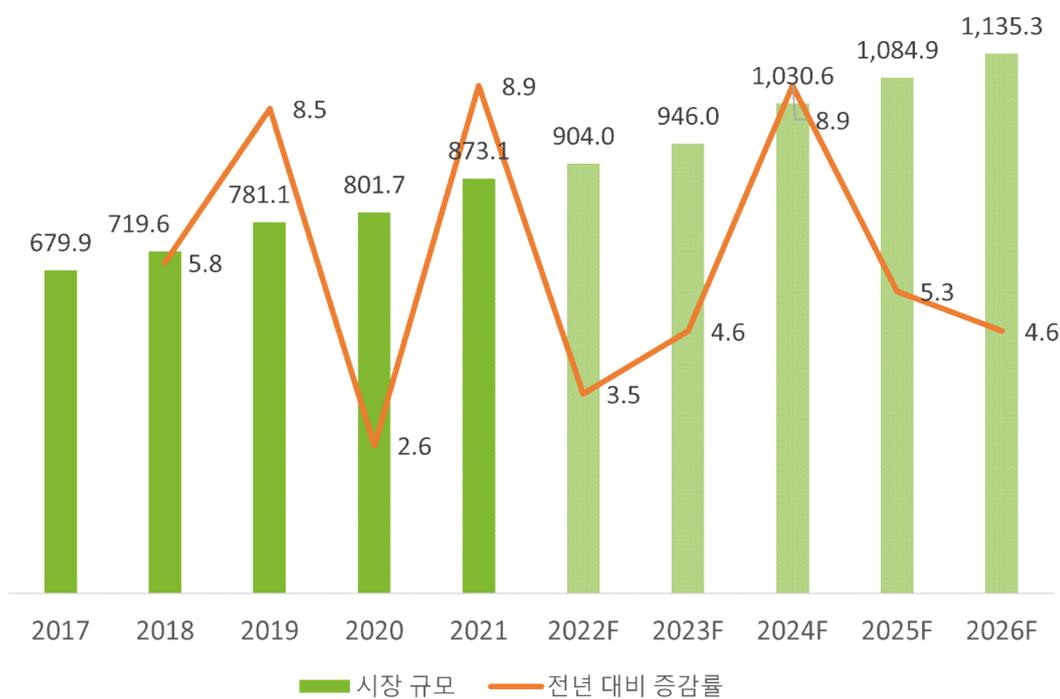
인도 이유식 시장은 향후 2026년까지 연평균 5.9% 성장하여 약 11억 3,530만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1

인도 이유식 시장 규모 추이(2017-2026F년)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인도 이유식 판매량

2021년 인도의 영유아 이유식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3.5% 증가한 약 109억 9,81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약 1.4% 증가함

- 유아식은 중산층의 소비 증가로 전체 식품 및 음료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매 제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음

인도의 영유아 이유식 시장 규모는 향후 2026년까지 연평균 5.1% 성장하여 약 140억 6,34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림 2

인도 이유식 판매량 추이(2017-2026F년)

(단위: 백만 달러, %)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02 수출입 통계

조사 대상 품목의 HS CODE

조사 대상 품목의 HS CODE는 다음과 같음

HS CODE 1901: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HS CODE 1901.10: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HS CODE 1901.10.90: 기타

국가별 HS CODE

- 글로벌: 1901.10
- 인도: 1901.10.90
- 한국: 1901.10.1090

글로벌 영유아 조제유 수입 규모

2021년 글로벌 영유아 조제유(HS CODE 1910.10) 수입 규모는 약 111억 7,156만 달러로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0.5% 증가함

- 상위 5개 수입국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영국, 말레이시아이며, 이 중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과 말레이시아로 각각 3.9%, 3.3%를 기록함
- 2021년 기준 인도는 약 2,062만 9,000달러를 수입하여 전체 수입 규모의 약 0.2%를 차지하였으며, 전체 수입국 중 67위를 차지함



표 1

글로벌 영유아 조제유 수입 규모 추이(2017-2021년)

(단위: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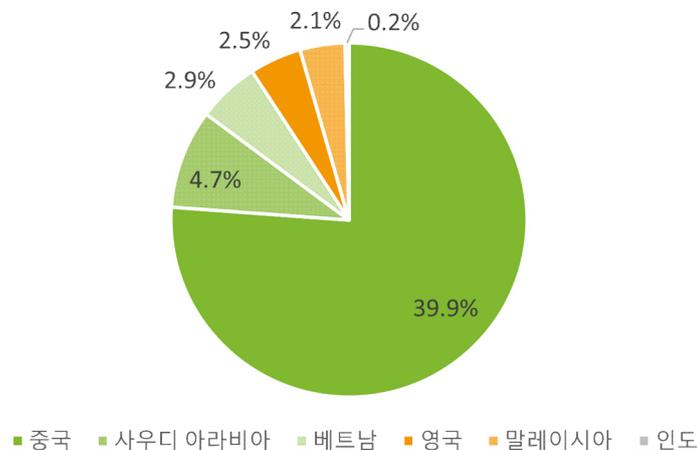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성장률
글로벌	10,942,084	12,150,584	12,512,211	12,519,649	11,171,564	0.5
1 중국	4,071,606	4,888,489	5,330,701	5,218,026	4,453,193	2.3
2 사우디아라비아	559,643	513,984	580,541	566,988	528,439	-1.4
3 베트남	290,454	230,119	271,836	286,014	328,789	3.1
4 영국	237,441	263,274	284,414	350,392	276,872	3.9
5 말레이시아	209,699	251,322	230,416	262,903	238,859	3.3
67 인도	13,896	28,232	20,022	25,897	20,629	10.4
기타	5,559,345	5,975,164	5,794,281	5,809,429	5,324,783	-1.1%

자료: ITC



그림 3

글로벌 영유아 조제유 국가별 수입 비중(2021년)



자료: ITC

인도 영유아 조제유 수입 규모

2021년 인도 영유아 조제유(HS CODE 1910.10.90) 수입 규모는 對태국 수입액이 약 1,348만 8000달러로 전체의 65.4%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함

- 이어서 싱가포르(29.0%), 네덜란드(5.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상위 3개국인 태국, 싱가포르, 네덜란드로부터의 수입액이 전체(100.0%)를 차지함

최근 5년간(2017-2021년) 對한국 수입은 2018년 6,000달러를 기록한 것 외에 확인되지 않음



표 2

인도 영유아 조제유 수입 규모 추이(2017-2021년)

(단위: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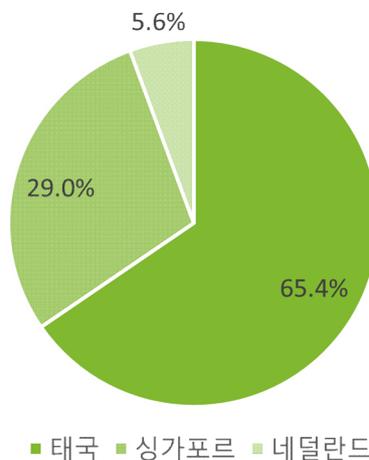
국가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성장률
글로벌	13,902	28,103	20,096	25,784	20,616	10.4
1 태국	7,359	11,450	9,522	14,733	13,488	16.4
2 싱가포르	4,654	8,330	6,595	9,328	5,972	6.4
3 네덜란드	1,886	7,903	2,892	1,321	1,155	-11.5
4 스페인	0	0	0	N/A	N/A	N/A
5 스위스	0	293	1,081	386	N/A	N/A
10 한국	0	6	0	N/A	N/A	N/A
기타	3	121	6	16	1	-24.0

자료: ITC



그림 4

인도 영유아 조제유 국가별 수입 비중(2021년)



자료: ITC

한국 영유아 조제유 수출 규모

2021년 한국의 영유아 조제유(HS CODE 1901.10.1090) 수출 규모는 약 215만 4,500달러를 기록함

- 최근 5년간(2017-2021년) 연평균 성장률은 -15.7%를 기록함

2021년 한국의 對인도 영유아 이유식 수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한국의 對글로벌 및 對인도 영유아 조제유 수출 규모 추이(2017-2021년)

(단위: 천 달러,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성장률
對글로벌	수출액 (YoY)	4,260.40	3,177.80	3,361.30	4,555.8	2,154.5	-15.7
		13.0	-25.4	5.8	35.5	-52.7	-
對인도	수출액 (YoY)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N/A	-

자료: KATI농식품수출통계

II

트렌드



01 소비 트렌드

편리하고 영양분 높은 이유식에 대한 관심 증가

- Newswires에 따르면, 시판 이유식은 모유의 이상적인 대체물로 간주되고 있음. 인도에서는 제품의 편리함, 영양분 공급 등의 이유로 이유식과 분유를 널리 채택하고 있음
- 또한 여성 노동 인구 증가와 개인 소득 증가로 인해 유아식 시장이 더욱 성장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방부제와 화학물질을 첨가하지 않고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유기농, 프리미엄, RTE(즉석섭취) 이유식 및 분유 등의 다양한 제품 혁신도 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



그림 5

인도 영유아 이유식 제품

제품명	제품 이미지	제조사	특징
Nestle LACTOGEN 1 Infant Formula Powder		Nest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신생아를 위한 프로바이오틱(L.reuteri)이 함유된 조제분유 - 소화하기 쉬운 유청 단백질 함유 - bag-in-box 포장으로 안전성, 위생 및 편의성 향상 - 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다는 경고문구가 패키지에 쓰여 있음
Aptamil Gold Infant Formula Milk Powder for Babies		Aptam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 잡힌 영양소 함유 - GOS 및 FOS, 뉴클레오티드, 아연, 셀레늄, 비타민 A, C, E 및 B-카로틴 조합 - DHA와 ARA, 철, 요오드, 엽산, 콜린, 타우린의 최적화된 혼합 - 유청 카제인 비율 60:40, 100% 유당 - 단백질, 칼슘, 인, 비타민 D 및 K - 모유가 아기에게 가장 좋다는 경고문구가 패키지에 쓰여 있음

02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1. 개요

인도 내 웹트래픽 수가 높은 Lazada에서 산양분유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

- 분석의 단계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분석 순임
- 수집 항목은 제품 소개란(성분, 홍보 문구), 소비자 반응(리뷰)이며 총 수집 건수는 제품 233건, 소비자 반응 6,121건임

2. 제품 특성 주요 키워드 추출

산양분유 제품 소개 출현 단어빈도는 '단백질' 184건, '영양' 159건, '성분' 120건 순임. 그 뒤로 '아기', '비타민', '건강', '브랜드', '피부', '미네랄', '유아기'가 출현함

산양분유 영양소에 대한 언급 빈도가 높았음. 유아기에 먹는 식품인 만큼 성분 및 재료에 관한 단어가 많이 도출됨

빅데이터 분석

1. 개요

인도 내 웹트래픽 수가 높은 Lazada에서 산양분유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

- 분석의 단계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분석 순임
- 수집 항목은 제품 소개란(성분, 홍보 문구), 소비자 반응(리뷰)이며 총 수집 건수는 제품 233건, 소비자 반응 6,121건임

2. 제품 특성 주요 키워드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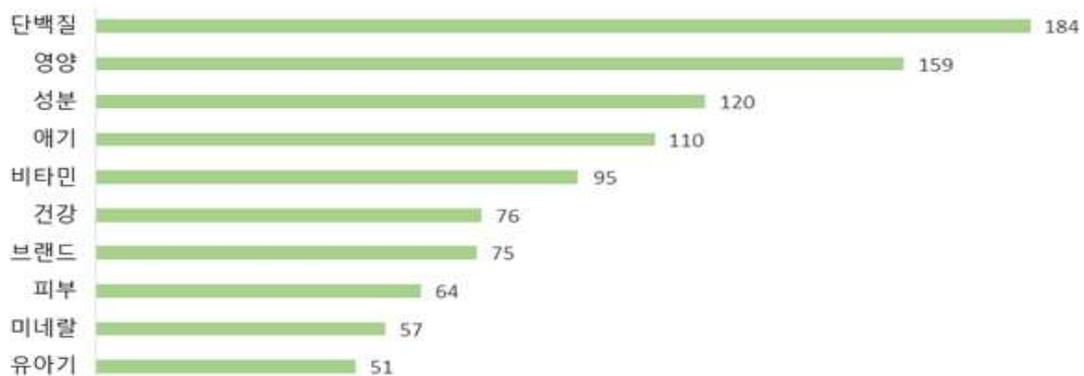
산양분유 제품 소개 출현 단어빈도는 '단백질' 184건, '영양' 159건, '성분' 120건 순임. 그 뒤로 '아기', '비타민', '건강', '브랜드', '피부', '미네랄', '유아기'가 출현함

산양분유 영양소에 대한 언급 빈도가 높았음. 유아기에 먹는 식품인 만큼 성분 및 재료에 관한 단어가 많이 도출됨

표 4 제품 특성 출현 단어 빈도

순위	출현 단어	출현 빈도
1	단백질	184
2	영양	159
3	성분	120
4	아기	110
5	비타민	95
6	건강	76
7	브랜드	75
8	피부	64
9	미네랄	57
10	유아기	51

그림 6 제품 특성 출현단어 빈도



3. 동시출현단어 분석

동시출현단어 빈도는 아래 같으며 가장 자주 나타난 키워드는 비타민 미네랄, 그 뒤로는 모유, 유아기, 단백질, 면역체계, 뇌, 눈, 발달, 고품질, Non-GMO, 호르몬 등이 도출됨. 산양분유 영양소에 관한 언급이 가장 많았으며, 산양분유 검색 시 영양과 동시에 아기에게 끼치는 효과에 관한 단어들의 빈도가 높게 나타남



표 5

제품 특성 연관단어 출현빈도

순위	연관단어	빈도
1	비타민 미네랄	51
2	모유	36
3	유아기	25
4	단백질	21
5	면역체계	19
6	뇌, 눈	15
7	발달	15
8	고품질	11
9	Non-GMO	9
10	호르몬	7

4. 리뷰 출현 단어 분석

소비자들의 리뷰에서는 유아식 죽에 대한 언급이 가장 높았음. 유아기 때 모유의 대체재로 산양분유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음을 알 수 있음



표 6

소비자 반응 연관단어 키워드 빈도

순위	연관단어	빈도
1	유아식 죽	130
2	공급하다	108
3	모유	101
4	유통기한	64
5	대체식품	57
6	유아기	56
7	단백질파우더	46
8	식료품 가게	37
9	건강에 좋은	26
10	복통	21

III

유통



01 유통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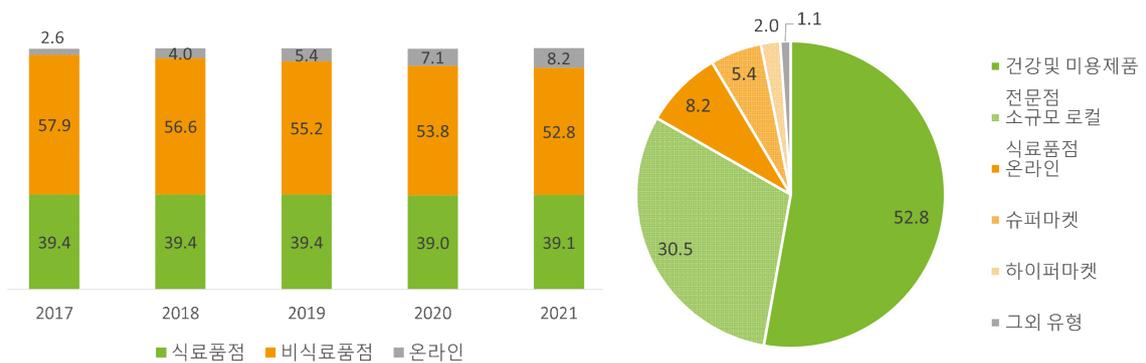
인도 영유아 이유식 유통구조

2021년 기준 인도 영유아 이유식의 유통구조는 크게 오프라인 소매 채널(Offline Retail Channels)과 온라인 소매 채널(Online Retail channels)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 전체 유통채널의 91.8%, 8.2%를 차지함

- 오프라인 소매 채널의 세부 유형별 점유율은 비식품점(52.8%), 식품점(39.1%) 순으로 나타남

오프라인 소매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식품점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건강 및 미용제품 전문점이 52.8%로 전체를 차지함. 그 다음 식품점인 소규모 로컬 식품점이 30.5%를 차지하였으며, 온라인 매장이 8.2%를 차지함. 그 외에 슈퍼마켓(5.4%), 하이퍼마켓(2.0%), 그 외 유형(1.1%)으로 나타남

그림 7 인도 영유아 조제유 유통채널별 시장 점유율(좌) 및 식품점 세부 점유율 현황(우)



자료: Euromonitor International

02 주요 유통채널 분석

오프라인 유통채널

Statista에 따르면, 기업화되지 않은 소매 시장까지 포함하면 인도 소매업은 인도 GDP의 약 10%를 차지함. 이 중 식품 및 식료품 부문은 전체 소매 시장에서 63%를 차지함

- 전통 소매 시장에서 현대 소매시장으로의 변화는 식품 소매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침
- Adiya Birla와 Tata Group과 같은 대기업은 이 부문에서 강력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각 기업의 매장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전국적으로 1,500만 개가 넘는 전통 코너샵이 있는 대형 FMCG¹⁾ 소매업체가 장기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은 낮음. Reliance Industries와 같은 조직화된 소매업체가 이를 반증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조직화된 소매업 부문은 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런 점에서 인도 소매시장은 타 국가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음.

 표 7 인도 상위 10개 식품 소매업체

(단위: 십억 루피, 개)

	회사명	수입 (2022년)	매장 수
1	More Store	12,840	918
2	Amazon Fresh	1997.49	16,700
3	Flipkart Supermart	618.4	18
4	DMart	309.8	306
5	Reliance Smart	49.47	16
6	Big Bazaar ²⁾	N/A	30
7	Big Basket	66	18
8	Spencer's	24.51	197
9	Grofers ³⁾	2.36	N/A
10	Nature's Basket	N/A	19

자료: Business Insider, Google

1) Fast-Moving Consumer Goods(FMCG): 생활소비재, 회전율이 빠른 소비재를 일컫는 말
 2) 2022년 Reliance에 흡수되어 Reliance's Smart Bazaar Store로 명칭이 바뀜
 3) 2022년 Grofers에서 Blinkit으로 회사명 변경. 대표적인 온라인 그로서리 쇼핑몰

온라인 유통채널

Statista에 따르면, 2020년 인도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약 5,73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2025년 약 8,5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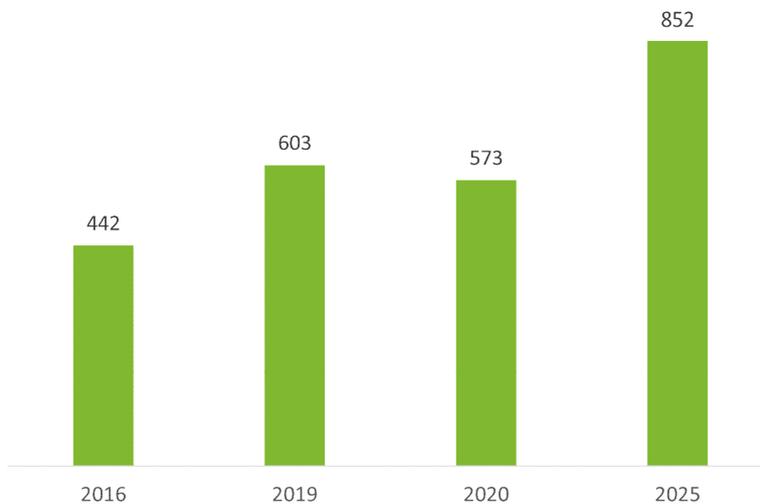
- 온라인 식품 시장은 2017년 기준 전체 소매 채널에서 2.6%를 차지하였으나 2022년에는 8.6%를 차지함



그림 8

인도 온라인 식품 시장 규모(2016-2025년)

(단위: 십억 달러)



자료: Statista

2019년 기준 인도 온라인 식품 시장에서 가장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Bigbasket임. Tata Group이 소유하고 있으며, 인도 벵갈루루에 본사를 두고 있음. 약 30개 도시에서 월 1,500만건 이상의 주문을 소화하고 있음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 마케팅, Amazon 및 Flipkart와 같은 온라인 쇼핑 기업의 할인, 코로나 기간 락다운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짐

그러나 아직까지는 인도 인구의 2/3 정도가 현대 소매 형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시골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시장점유율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됨

주요 오프라인/온라인 유통업체

1. Amazon Fresh

		간략 소개 및 주요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자회사 Fresh와 Pantry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일시킴 - 인도 내 약 300개 도시에서 주문 가능
유통채널명	Amazon Fresh		
연락처	1800-3000-9009	본사 소재지	410 Terry Ave N Seattle, Washington, 98109-5210 United States
홈페이지	www.amazon.in	매출액 및 종업원 수	1조 9,974억 루피 / N/A

2. DMart

		간략 소개 및 주요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설립, 현재 약 306개 매장 운영 중 - 식품, 생활용품, 의류, 주방용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판매 - Avenue Supermarts Ltd.(ASL)가 소유한 기업. 자회사로 Dmart, Dmart Minimax, DMart Premia, DHomes, Dutch Harbour 등이 있음 - 입점 문의 (https://www.dmartindia.com/partner-with-us)
유통채널명	Dmart		
연락처	+91 22 33400500	본사 소재지	Anjaneya Cooperative Housing Society Ltd, Opposite Hiranandani Foundation School, Orchard Avenue, Powai, Mumbai, Maharashtra - 400076
홈페이지	www.dmartindia.com	매출액 및 종업원 수	39억 달러 / 약 58,597명

3. Flipkart Supermart

		<p>간략 소개 및 주요 이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설립된 대표적인 인도 전자상거래 쇼핑몰 - 아기용품, 서적, 의류, 가전제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함 - 하루 온라인 방문객 수 1,000만 명, 등록된 사용자 약 1억 명 - 입점 문의 (seller.flipkart.com)
<p>유통채널명</p>	<p>Flipkart Supermart</p>	<p>본사 소재지</p> <p>Buildings Alyssa, Begonia & Clover, Embassy Tech Millage, Outer Ring Road, Devarabeesanahalli Village Bengaluru, Bangalore, Karnataka 560103 India</p>
<p>연락처</p>	<p>0803-778-6001 regulatory@flipkart.com</p>	
<p>홈페이지</p>	<p>www.flipkart.com</p>	
		<p>매출액 및 종업원 수</p> <p>77억 달러 / 약 30,000명</p>

4. BigBasket

		<p>간략 소개 및 주요 이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설립된 Innovative Retail Concepts Private Limited 소유의 인도 최대 온라인 식품 매장 - 신선식품, 향신료, 포장 제품, 육류 등 다양한 품목 취급 - 인도 내 30개 이상 도시에서 서비스를 하며, 월 1,500만 건 주문이 이루어짐 - 하루 4개 시간대 중 선택하여 배송 요청 가능 - 벤더 문의(vendorconnect@bigbasket.com)
<p>유통채널명</p>	<p>BigBasket</p>	<p>본사 소재지</p> <p>Supermarket Grocery Supplies Pvt. Ltd. 2nd Floor, Fairway Business Park, Embassy Golf Link, Challaghatta, Bangalore, Karnataka 560071</p>
<p>연락처</p>	<p>1860-123-1000</p>	
<p>홈페이지</p>	<p>www.bigbasket.com</p>	
		<p>매출액 및 종업원 수</p> <p>660억 루피 / 약 4,834명</p>

5. Reliance Smart

		간략 소개 및 주요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설립. Reliance 기업 소속 - 신선식품, 베이커리, 가정용품, 의류 등을 취급 - 슈퍼마켓 체인인 Reliance Smart는 다른 자회사 체인들과 함께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음 - Top Global Retailers 중 56위에 속함 - 모회사인 Reliance Retail은 약 4,000개의 매장 보유
			본사 소재지
유통채널명	Reliance Smart	매출액 및 종업원 수	620억 달러 / 약 139,000명
연락처	+91-22-61220220		
홈페이지	www.reliancesmart.in		

IV

통관 및 인증



01 통관 및 검역

한국 수출 통관 절차

출항 전 보고

관세법상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함. 즉,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 및 서비스를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크게 정식 수출신고와 목록통관으로 구분됨

수출신고 서류 준비

- ① 정식 수출신고:
 - 목록통관절차 적용 대상 이외 물품의 수출
- ② 목록통관:
 - 개인용품, 무역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물품 또는 관세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정식통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예외적인 물품의 수출 절차
 - 목록통관은 일반적인 특송 업체 또는 우체국 EMS를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는 절차임
 - 대상은 일반 환급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 FOB 가격이 2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의미하며 카탈로그, 서류, 외교행낭 물품 등이 있음
- ③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정식 수출신고로, 전자상거래를 위해 간이한 방식으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음
 - FOB 200만 원 이하 물품의 수출목록을 신고서로 쉽게 변환하여 기존의 수출 신고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음
 - 해당 시스템에 따른 간이수출신고로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여 반품 재수입 시 관세 면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세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한국 수출 통관 절차도



서류 구비

수출하기 전 구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음

- Invoice
- Packing List
- 원산지증명서(필요 시)
- 전락물자 자가판정서(필요 시)

수출신고 후 구비 서류 (위생증명서 등)

- 수입국 법령에 따라 위생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련 서류 발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발급은 관세청 유니패스⁴⁾에서 신청함⁵⁾
- 처리기한: 3일
- 수출신고필증을 구비한 경우: 위생증명서는 수출신고필증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필증에 기재된 적재의무기한 이내에 발급되어야 함. 적재 의무 기한이 경과되었다면, B/L 등 수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발급 가능
- 수출신고필증을 구비할 수 없는 경우: 수출 전 수입자와의 사전 협의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하여 발급 가능함. 수입자 정보 기재는 필수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발급 불가능
 - 샘플용으로만 가능(Sample Prior to Exportation)
 - 사전 협의용으로만 가능(Purpose of Prior Consultation before Exportation)
 - 전시용으로만 가능(Exhibition Purpose)

위생증명서 등 취득을 위한 제출 서류

- 영업허가 신고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수출제품품목보고서(기구, 용기·포장의 경우 검사성적서만 제출) 사본 1부
-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 수출식품 등 검사성적서(분석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만 해당) 원본 1부

수출신고 전
확인 사항

- 원산지증명서 발행 여부 검토: 거래 당사자 간 계약 시
- 환급 대상 여부: 중소기업의 경우 간이 정액환급 또는 개별환급 중 유리한 환급방식 검토 및 선정
- 수출 물품의 HS CODE 검토: 정확한 수출신고에 따른 간이정액환급, 원산지증명서 등을 위한 검토
- 물품의 소재지 확인: 수출신고 예정물품의 검사를 위해 수출신고 시점의 물품 소재지 확인 필요

수출신고

- 수출 화주로부터 전달받은 Invoice, Packing List를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및 관세청 UNI-PASS에 전자 접수
-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현품검사 또는 자동수리(Paper Less; PL)로 통지됨

세관 심사

- 위의 수출신고 접수 결과에 따라 세관의 심사가 있을 경우 서류심사, 현품검사가 이루어짐
- 서류심사의 경우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 상 일치 여부를 확인함
 - 현품검사의 경우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신고지 또는 적재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선(기)적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함.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4) 관세청 유니패스 - 통관단일창구 - 신청서 작성 14번 수출식품 검역신청서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

5)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지

https://www.mfds.go.kr/brd/m_563/list.do

인도 통관 절차 - 사전 절차

사전 절차

산양분류의 HS CODE는 제1901.1090호이며, 해당 세번은 인도의 수입 금지 또는 제한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식품 수입 면허 및 수출입자 코드 발급을 통해 인도로 수출이 가능함. 수출입 금지/제한 품목은 인도 DGFT(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에서 확인 가능함⁶⁾

① 개요

2016년 개정된 Food Safety and Standards(Food Import) Regulations, 2016에 따르면 인도에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선 식품 수입 면허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함. 따라서, 수입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인도에서 식품을 수입할 수 없음

면허는 FSSAI(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시스템⁷⁾에 접속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서 작성이 가능함. 단, 작성된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FSSAI 관할지로 오프라인에 직접 제출되어야 함

② 면허 취득 절차

다음은 신규 면허 취득 절차이며, 모든 절차 단계에서 당국은 FoSCoS를 통해 신청인에게 질의를 할 수 있음. 모든 질의는 30일 이내에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신청이 거절됨

③ 수수료

수수료는 품목 및 업종에 따라 다르며, 의뢰 기업 업종인 도소매·유통업을 기준으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⁸⁾

④ 제출 서류

제출 서류도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품목 및 업종에 따라 다르며, 의뢰 기업 업종인 도소매·유통업을 기준으로 수수료는 다음과 같음⁹⁾

업종	구분	면허 종류	수수료
도매업	매출액 연간 3억 루피 초과	중앙 면허	7,500루피
	매출액 연간 3억 루피 이하	지방 면허	2,000루피
소매업, 유통업	매출액 연간 2억 루피 초과	중앙 면허	7,500루피
	매출액 연간 2억 루피 이하	지방 면허	2,000루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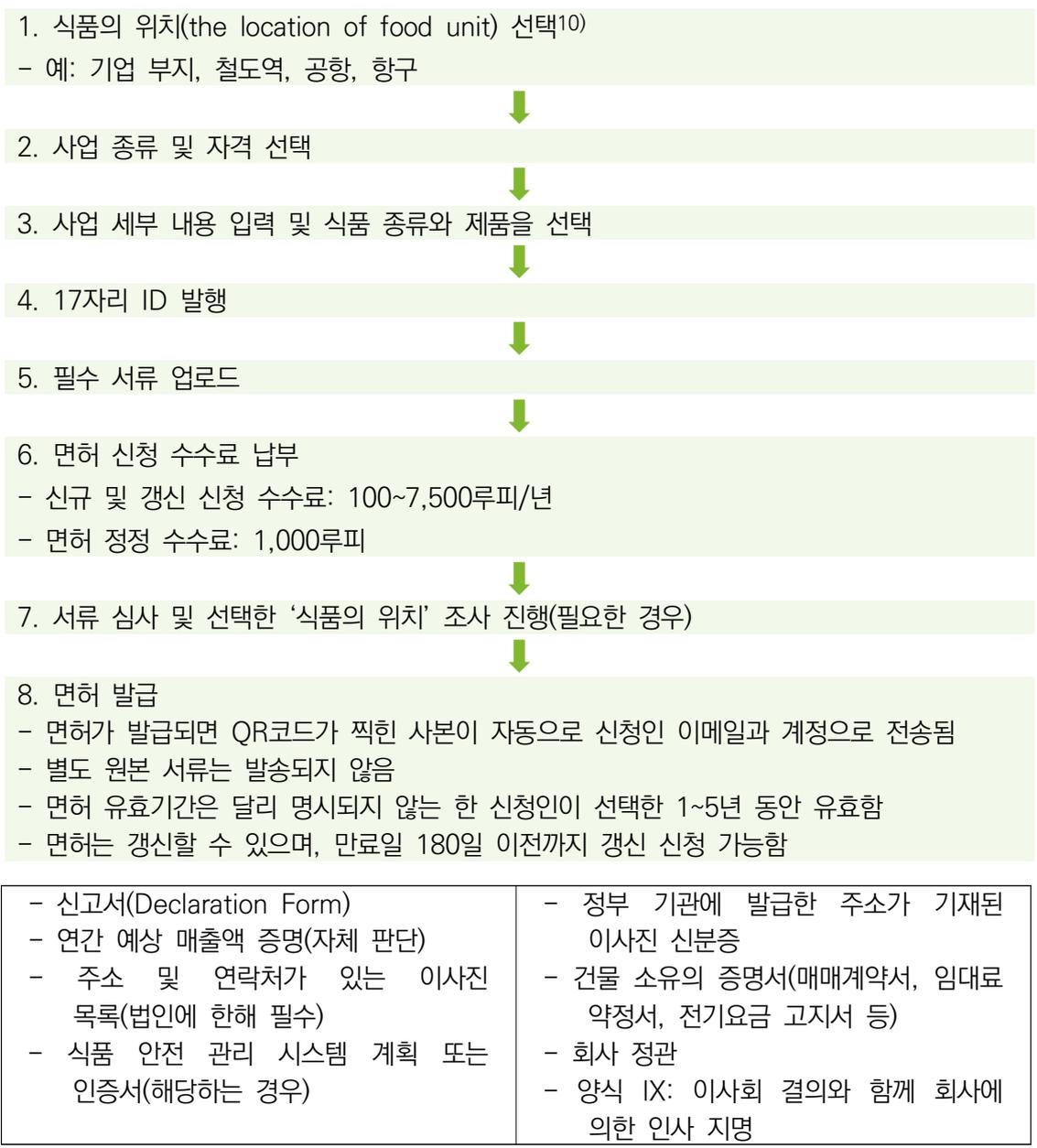
6) Import Policy – Restricted/Prohibited Item Details – www.dgft.gov.in/CP/?opt=itchs-import-export

7) FSSAI FoSCoS(Food Safety Compliance System) – foscoss.fssai.gov.in

8) Fee Structure – foscoss.fssai.gov.in/public/assets/docs/KindofBusinessEligibilityLatest.pdf

9) Documents Required – New/Renewal of License

foscoss.fssai.gov.in/public/assets/docs/KoBwiseDocumentsrequiredforLicense.pdf



10) FoSCoS - Apply for New License - foscos.fssai.gov.in/apply-for-lic-and-reg

수출입자 코드
(IEC,
Importer-
Exporter
Code)

① 개요

인도에서 수출입을 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나라의 통관고유부호에 해당하는 수출입자 코드를 발급받아야 함. 수출입자 코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② 발급 방법 및 구비서류

- 온라인: DGFT¹¹⁾ IEC 신청 창에서 “Foreign Importer/Exporter”를 선택하고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함. 납세번호(PAN; Permanent Account Number) 증서와 은행예금증서(Bank certificate of deposit)를 스캔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오프라인: (Form-ANF 2A)에 은행 송금증 부분/여권 사이즈 사진 2매/ 납세번호(PAN)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DGFT에 제출

11) DGFT – Apply for IEC – www.dgft.gov.in/CP

인도 수입 통관 절차

1. 식품 수입 라이선스 취득 및 수출입자 코드 발급



2. 수입신고



3.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



4. 관세 납부



5. 신고 수리 및 물품 반출

수입신고

① 개요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하며, EDI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 가능

②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ICES(India Customs EDI) 시스템 ICES(India Customs EDI) 시스템¹²⁾을 통해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 오프라인 제출: 수입자는 Bill of Entry 4부를 준비하여 2부는 세관에 제출, 1부는 거래 은행, 1부는 수입자가 보관함

서류 심사

서류 심사 후 물품 검사가 이루어지며, 서류 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음. 서류 심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에 오프라인으로 신고 시 제출한 Bill of Entry 2부 중 1부를 수입신고인에서 반송함

-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 금지 또는 제한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운송인이 제출한 적하목록과 수입신고인이 제출한 Bill of Entry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
- 신고된 가격이 적절한 방법으로 결정되었는지 여부

12) www.icegate.gov.in/

물품 검사

① 검사 종류

식품검사는 서류 검사, 육안 검사, 샘플 검사 중 선별된 방법으로 진행되며, 샘플 검사의 경우 검사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음

② 검사 소요 기간

인도의 식품 검사 절차는 1주에서 1개월이 소요되는 편이며 샘플 테스트를 위한 시설이 부족해 검사 대기 제품들은 유료 보관창고에 장시간 방치되는 경우가 잦음. 일부 창고의 경우 음료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

③ 유의사항

- 식품은 통관 시 유통기한의 최소 60%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함
- 수입자가 식품 수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식품 수입을 시도할 경우 식품 수입 면허와 수출입 코드(Import-Export Code)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모든 식품 수입자는 반드시 자신의 Customs House Agent(CHAs)를 지정하여야 하며 CHA는 식품 수입 제반 절차 및 관련 서류 업무를 담당하며 식품 수입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수입자와 같이 책임을 짐
- 컨테이너 하나에 여러 종류의 식품이 적재 될 경우, 식품 검사관의 검사 및 샘플 채취 작업이 용이하도록 포장해야 함
- 물품 검사 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의 경우 증빙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으니 사전에 증빙을 갖추어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좋음. 신용공인프로그램(ACP) 제도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제도를 활용한다면 통관을 위한 별도의 지정창고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검사 생략 등 신속한 통관이 가능함

관세 납부

① 납부 방식

- 납세자는 TR-6 challan 서식을 이용하여 지정 은행에 관세 납부. 서류 심사 후 세관에서 받은 Bill of Entry 1부를 은행에 제시하면 은행은 배서를 통해 관세 납부를 증명함
- 인도는 전자 세금 납부 제도인 E-Payment system을 구축 완료하여 모든 세관에서 지정 은행을 통해 전자 납부가 가능함. 지정 은행¹³⁾은 ICES(India Customs EDI) 시스템에서 16개를 명시하고 있음

② 납부 연체료

인도는 관세 확정 이후 8일을 초과하면 납부 연체료를 연간 20% 복리로 부과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함

13) E-Payment 지정은행 리스트 - www.icegate.gov.in/guidelines/authorized-banks-e-payment

〈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

- 서명된 상업송장
- 포장 명세서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GATT 관세평가 신고서 양식
- 신용장, 보험증권(해당하는 경우)
- 수입허가자격증서(해당하는 경우)
- 검사증명서(해당하는 경우)
- 가능한 경우 카탈로그, 기계류, 예비품 또는 화학물질에 대한 목록, 기술문서 작성서류
- 원산지증명서(해당하는 경우)

02 인증

BIS(Bureau of India Standards) (필수)

1. 개요

인도 표준청(BIS, Bureau of India Standards)은 인도 소비·식품·유통부(Ministry of Consumer Affairs, Food and Public Distribution)의 산하기구로서, 제품 인증제도를 통해 최종소비자가 사용할 제품의 품질, 안정성,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ISI 마크를 운영하고 있음. 섬유, 화학물질, 건축재료, 펌프, 금속,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농업, 식음료, 가죽, 목재, 종이 등 85개 품목에 대해 16가지 분야로 인증을 운영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ISI 인증은 자발적이거나, 공익, 인간, 동물 또는 식물 건강의 보호, 환경의 안전, 불공정 무역 관행의 방지 및 국가 안보 등을 위하여 특정 품목은 의무적으로 ISI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뢰 품목인 영아용 조제유와 유제품, 생수 등은 의무적으로 ISI 인증을 받아야 함¹⁴⁾. 영아용 조제유는 16개 분야 중 Food and Agriculture Department(FAD)에 해당하며, “IS 144333(Infant Milk Substitutes)” 인증을 받아야 함

2. 인증 절차¹⁵⁾

BIS 인증 절차는 Option 1, Option 2, 총 2가지로 나뉘며, IS 14433은 Option 2에 해당하나 Option 2는 외국에 소재한 공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 절차는 Option 1 기준의 인증 절차를 소개함

IS 14433의 경우, ISI 인증 의무 대상이지만 동시에 간소화된 절차(Simplified Procedure)¹⁶⁾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에도 해당함. 절차 이행 중 별도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신청서 제출부터 인증까지 30일 이내 처리가 가능하므로 사전 준비에 따라 비교적 빠른 인증 취득이 가능함

또한, 인도 내 최초 인증신청 품목일 경우 별도 절차가 존재하나 현재 IS 14433은 이미 15개의 인증 업체가 존재함¹⁷⁾

14) BIS - Products under Compulsory Certification

www.bis.gov.in/product-certification/products-under-compulsory-certification/scheme-i-mark-scheme/

15) BIS - Product Certification Process -

www.bis.gov.in/product-certification/product-certification-process/

16) List of Products Under Simplified Procedure

<https://www.bis.gov.in/wp-content/uploads/2021/04/List-of-Products-Under-Simplified-Procedure.pdf>

17) IS 14433 인증 취득 업체 리스트

www.services.bis.gov.in/php/BIS_2.0/bisconnect/knowyourstandards/Indian_standards/isdetails_mnd/6194

1. 인증 신청

- 온라인 신청¹⁸⁾ 또는 Form-V를 작성해서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



2. 공장 현장 평가 진행

- 제조 인프라, 생산 프로세스, 품질 관리 및 시험 능력 평가
- 소요 기간: 인도 내 공장 1일, 외국 소재 공장 2일
- 공장 방문 시 작성된 샘플 시험 보고서는 검토 목적으로 사용됨
- 제3자 실험실에서 별도 시험을 위한 제품 샘플 채취(1개 샘플만 채취)



3. 제3자 실험실에서 샘플 시험 진행

- 소요 기간: 제품에 따라 30일(1개월) 이상 소요 가능



4. IT 소프트웨어에 등록하여 고유번호 취득

- 샘플 시험이 진행되는 제3자 실험실에 고유번호와 샘플을 제출하고 영수증 수령
- 수령한 영수증을 IT 소프트웨어에 업로드



5. 샘플 시험 결과 보고서 승인

- 소요 기간: 공장 방문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고 샘플 시험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



6. 인증 취득(GoL, Grant of License)

- 인증 최초 사용허가(The licence to use Standard Mark) 기간: 최소 1년 ~ 최장 2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는 거절될 수 있음. 신청을 거절하기 전 거절 통지(a rejection notice)와 함께 21일 이내의 소명 기간이 주어짐. 해당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은 거절됨

18) ISI 인증 온라인 신청 - www.bis.gov.in/product-certification/product-certificatin-apply-online/

- 신청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시험을 위해 샘플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 제3자 실험실에서 진행되는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신청인의 시험 시설 부족
- 신청인의 기술 인력 부족
- 부적합 자문 보고서(discrepancy-cum-advisory report)에 명시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BIS에 검사료 등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인증 취득을 위해 서류를 변조한 경우
- 신청인이 인증 취득 및 운영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 공장 현장 평가 기간 동안 제조시설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
- 공장 현장 평가 기간 동안 인증 검사관에게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두 번째 공장 현장 평가에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3. 인증 비용

① 검사 비용 등

검사 수수료(Inspection fee)는 미리 납부해야 하며, 샘플 시험료(Testing fee)는 Option 1의 경우 신청인이 부담함

② 인증 수수료

인증 수수료(Marking fee)는 인증 사용허가 기간에 따라 다르며, 해당 기간이 1년일 경우 최소 금액에 해당함. 인증 수수료는 인증 신청시에 최소 금액의 50%를 선지급하며, 나머지 잔액은 인증 취득 시에 지급함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 선택)

1. 개요

HACCP은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s)의 영문 약자로, 해썬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함

HACCP 제도는 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인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해요인의 발생여건들을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규정을 말함

- 국제 인증 규격인 HACCP 인증을 받음으로써 식품 안전성을 향상하고 및 지속시키고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

2. 대상 품목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4조에 따르면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해야 하는 식품·축산물에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영업장 또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생산 식품이 해당 지역 내에서만 유통되는 도서지역의 영업자이거나 생산 식품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영업자는 제외함

1) 식품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운반급식), 식품제조·가공업(주류제조)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기타식품판매업)
- 식품냉동·냉장업 등

2) 축산품

-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가공·보관·운반·판매업
- 가축사육업
- 사료제조업 등

3. 인증 절차¹⁹⁾

1. HACCP 시스템 수립을 위한 생산, 기술, 설계, 연구 및 개발 등의 부서 대표자를 포함한 프로젝트팀 구성
- ↓
2. 제품의 구성, 보관, 포장상태, 사용방법 등을 포함하는 제품기술서와 공정흐름도 작성
- ↓
3. 생산공정 각 단계와 도출된 위해요소를 파악하여 위해요소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결과의 심각성에 근거해서 위험을 평가
- ↓
4. 식품안전을 위해 관리가 요구되는 중요 관리점(CCP:Critical Control Points)을 선정하여 식품안전을 위한 일반관리사항(POA)을 파악
- ↓
5. 모든 위해요소의 관리가 기준치 설정대로 충분히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는 한계치 설정 및 모니터링

4. 제출 서류

HACCP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함

- HACCP 신청서
 - 식품인 경우 전품목 전업종 인증심사비용은 20만 원임
- 식품안전관리인증 계획서
 - 중요 관리점의 한계 기준, 모니터링 방법, 개선 조치 및 검증 방법을 기술한 자체계획서 등
- 영업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등 사본
- 영업신고필증
 - 대표자, 업소명, 주소, 영업의 종류, 실제 운영 면적이 확인되어야 함
- HACCP 교육수료증
 - 경영인 과정(94시간 이상): 대표자
 - 종업원 과정(24시간 이상): 직원 중 1인
- 영업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일일 위생 점검기록, 위생교육 수료증 및 위생교육 기록
 - 종사자 건강검진 관련 서류
- 품목별 HACCP 관리 기준서에 따른 서류

19) 식품제조업체 HACCP 적용절차

<https://fresh.haccp.or.kr/haccp/introduction/haccplntroduction.do?tp=5>

5. 인증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HACCP 인증절차 및 검사기관을 확인할 수 있음

한국의 HACCP은 식품, 축산물, 사료의 세 종류로 나뉘며 식품과 축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료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여 관리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 원료 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임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임

6. 의무 적용 대상

1)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 12월 1일부터 의무적용 식품이 확대됨. 기존에는 연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왔으나, 12월 1일부터는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 적용 대상 식품에 해당하면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

2) 대상 식품

-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어육소시지
-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어류·연체류: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단순 절단, 가공하여 냉동한 식품(빵가루 입힘 포함)(절단하거나, 가공)
 - 조미가공품: 어류 또는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하여 소스 등을 첨가, 조미하여 그대로 냉동하거나 가열·조리 등을 거쳐 냉동한 식품
-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 냉동식품(면류): 생면, 숙면, 건 면을 냉동한 식품
-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캔디류·빵류·떡류
- 빙과류 중 빙과
- 음료류(커피류는 제외한다)
- 레토르트식품
-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
 -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
-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숙면·건면

- 국수: 곡분 또는 전분, 전분질원료, 변성전분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
- 냉면, 당면, 파스타, 수제비, 만두피, 분모자(중국 동북 지방의 당면)는 의무대상이 아님
- 특수용도식품(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 즉석섭취·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 소나 돼지의 창자에 여러 가지 재료를 소로 넣어 삶거나 찐 제품(순대국, 순대볶음 제품에 들어가는 순대를 직접 제조하는 경우 의무적용에 해당)
- 식품 제조·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3) 유예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 적용 시행 시기를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2월 1일까지 1년 유예함. 다만, 의무 대상 식품 제조·가공업체로서 2020년 12월 1일부터 영업을 신규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함

4) 행정처분

HACCP 인증 의무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됨

03 라벨링

라벨링 규정

적용 규제	인도 식품안전표준국(FSSAI)	
세부 내용	라벨 표기사항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이름, 성분목록, 영양 정보, NON-VEG 또는 VEG 스티커, 식품첨가물, 용량, 원산지, 코드번호(로트번호), 사용 방법 등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p>성분목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 성분 식품을 제외하고, 제조 당시의 중량 또는 부피를 내림차순으로 기재하며 복합 재료들이 성분의 5%를 차지하지 않는 경우 성분 목록에 작성할 필요는 없음 - 100mg, 100ml당 또는 1회 섭취량 영양정보를 라벨에 표시함 <p>영양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네랄, 단백질, 비타민 또는 그 화합물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은 아미노산 또는 효소가 첨가된 영양소의 양을 라벨에 표시해야 함 - NON-VEG(Non-vegetarian)는 갈색의 원과 원의 직경의 두 배 크기인 갈색 윤곽이 있는 사각형으로 표시하며, VEG는 녹색의 원과 원의 직경의 두 배 크기인 녹색 윤곽이 있는 사각형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예방함 <p>NON-VE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ON-VEG" 식품의 모든 포장에는 제품이 "NON-VEG" 식품임을 나타내기 위해 좌측에 명시된 기호 및 색상 코드로 라벨에 표기해야 함 - "NON-VEG" 심벌은 갈색의 원과 원 직경의 두 배 크기인 갈색 윤곽이 있는 사각형이어야 하며, 아래에 명시된 최소 크기보다 작지 않은 직경을 가져야 함 - 식품 중 어느 하나라도 "NON-VEG" 성분으로 계란만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제조자 또는 포장업자 또는 판매자는 상기 기호 이외 상기 내용을 언급할 수 있음 - "VEG" 식품의 모든 포장에는 좌측에 명시된 기호 및 색상 코드로 라벨에 표기해야 함 <p>VE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EG" 심벌은 녹색의 원과 원의 직경의 두 배 크기인 녹색 윤곽이 있는 사각형이어야 하며, 원은 아래에 명시된 최소 크기보다 작지 않은 직경을 가져야 함

04 위생요건

식품 첨가물 규정

인도 식품 첨가물 규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건가족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와 식품안전표준청(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FSSAI)이 있음

- 보건가족복지부는 인도의 보건 행정과 가족 복지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산하에 크게 보건가족복지부와 보건연구부(Department of Health Research)로 구분되어 있음
- 식품안전표준청(Food Safety and Standards Authority of India, FSSAI) - 보건가족복지부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2006년 식품안전표준법(Food Safety and Standards Act, 2006)에 바탕을 두고 설립됨
 -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 및 감독 담당
 - 인도 내 식품의 제조, 보관, 유통, 판매, 수입과 관련해 식품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와 규제를 관할
 - 세부적인 내용은 2017년 9월 11일에 발표된 식품안전표준규정²⁰⁾ 2017(Food Safety and Standard Regulation 2017)에 의거함
- 식품표준 및 식품첨가물규정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관련 규정 내용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음
 - 식품에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첨가되는 물질로, 식품의 제조, 처리 또는 포장에서의 사용 결과에 따라 식품의 구성요소가 되나 식품 자체의 그 어떠한 물리적 또는 기술적 효과를 주기 위한 물질이 아님

인도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표기에 대한 범례

- 우수제조관리기준(GMP) 준수 : 식품첨가물 목록에 등재되어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기준이 없는 경우로, 우수제조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따라 사용이 가능함
- 식품첨가물 이행(carry over)
 - 이행을 통해 식품에 존재하는 첨가물은 각 식품에 허용된 최대량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됨
 - 이행은 해당 공정에서 사용하지 않았지만 식품첨가물이 식품 원재료 자체에서 유래하거나 식품첨가물이 이미 들어간 재료를 사용하여 이행되어 검출되는 경우를 의미
- 특정 식품 사용 금지
 - 식품첨가물규정에 수록되어 있으나 해당 품목에 사용할 수 없음

20) 식품표준 및 식품첨가물규정

<https://archive.fssai.gov.in/home/fss-legislation/fss-regulations.html>



표 9

인도 영아용 조제식에 적용되는 식품첨가물 기준

순번	물질명(영문)	함량정보	식품 유형
1	white mineral oil	GMP	
2	Thermally oxidised soya-bean oil	320 mg/kg	
3	Sodium calcium polyphosphate	GMP (안정제, 발효팽창제, 유화제, 영양제 목적으로 사용가능)	
4	Silica	GMP (케이킹방지제 목적으로 사용 가능)	
5	Sodium Silicate	GMP (케이킹 방지제 목적으로 사용 가능)	
6	sulfuric acid(Sulphuric Acid)	GMP (산도 조절제 목적으로 사용 가능)	
7	sorbitan monooleate	1 mg/kg	
8	sorbitan monolaurate	1 mg/kg	
9	Polyoxyethylene 40 stearate	GMP (유화제 목적으로 사용 가능)	
10	polyglycerol esters of interesterified ricinoleic acid	GMP (유화제 목적으로 사용 가능)	
11	phospholipid	GMP (유화제, 향산화제 목적으로 사용 가능)	
12	propylene glycol alginate	GMP (안정제, 증점제, 유화제 목적으로 사용 가능)	
13	propylene glycol	GMP	
14	Potassium Hydroxide	GMP (산도 조절제 목적으로 사용 가능)	
15	polyethylene glycol	GMP	
16	polyethylene glycol	GMP (수송용액, 부형제 목적으로 사용 가능)	모든 식품 유형
17	phosphoric acid	GMP (산미료, 금속이온봉쇄제, 향산화제 상승제 목적으로 사용 가능)	
18	oxygen	GMP (분사제, 충전제 목적으로 사용 가능)	
19	oleic acid	GMP	
20	magnesium hydroxide	GMP (산도 조절제 목적으로 사용 가능)	
21	isopropyl alcohol	GMP (광택제 목적으로 사용 가능)	
22	HVO (Hydrogenated vegetable oil)	GMP (카운트라인 제품의 컨베이어 벨트의 윤활유 목적으로 사용 가능)	
23	hydrogenated glucose syrup	GMP (감미료, 습윤제, 텍스처화제, 안정제, 증량제 목적으로 사용 가능)	
24	Glycerol monoacetate	GMP	
25	Glycerol diacetate	GMP	
26	glycerol	GMP	
27	Furcellaran	GMP (증점제, 젤형성제, 안정제, 유화제 목적으로 사용 가능)	
28	ethyl alcohol	GMP (수송 용액, 향료 목적으로 사용 가능)	
29	Bees wax	GMP	
30	bone phosphate	GMP	
31	argon	(유화제 수분유지제 목적으로 사용 가능)	
32	ammonium hydroxide	GMP (분사제, 충전제 목적으로 사용 가능)	
33	Acetic and fatty acid esters of glycerol	GMP (산도조절제 목적으로 사용 가능)	
		100 mg/kg	

자료: KATI농식품수출정보

유해물질

인도 보건가족복지부 산하 식품안전표준청에서 도출한 식품안전표준규정에 수록되어 있음

- 이 중 다섯 번째 규정인 오염물질, 독소 및 잔류물규정에 유해물질에 대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음
- 유해물질의 식품분류는 오염물질, 독소 및 잔류물규정(Contaminants, Toxins and Residues)²¹⁾에 제시된 식품 및 식품군을 중심으로 연구진이 분류 체계를 만들
- 인도 식품안전표준규정 중 오염물질, 독소 및 잔류물규정에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가 제시되어 있음
 - “오염물질”은 식품에 의도적으로 첨가된 물질이 아니라, 환경오염의 결과로 곡물 재배, 축산 및 수의학 활동을 포함한 식품 생산, 제조, 가공, 재료 준비, 처리, 포장, 운송 혹은 보관 과정에서 식품에 첨가되는 모든 물질로 정의됨



표 10

인도 영아용 조제식에 적용되는 유해물질 기준

순번	유해물질명(영문)	기준치	식품유형	분류PVO
1	Lead (Pb)	0.02 ppm	영아용 조제식 (즉석섭취)	H
2	melamine	0.15 mg/kg	영아용 조제식 (액상)	O
3	melamine	1.0 mg/kg	영아용 조제식 (분말)	O
4	Tin (Sn)	5.0 ppm		H
5	Lead (Pb)	0.2 ppm		H
6	Copper (Cu)	15 ppm (다만 2.8 ppm 이상이어야 함)	영아용 우유 대체품 및 영아용 식품	O
7	Cadmium (Cd)	0.1 ppm		H
8	Arsenic (As)	0.05 ppm		H
9	Methyl Mercury	0.25 ppm (원소로 측정)	모든 식품	H

자료: KATI농식품수출정보

21) 식품안전표준규정 중 오염물질, 독소 및 잔류물 규정
<https://archive.fssai.gov.in/home/fss-legislation/fss-regulations.html>

V

시사점



01

수출 확대 방안

인도 영유아 조제유 시장의 특징

인도 영유아 이유식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 중임

- 상위계층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분유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서민층에서의 소비증가에 대해서는 자료가 부재함

유제품 생산 1위 국가

- 인도는 2021년 기준 세계에서 가장 우유를 많이 생산한 나라임. 세계 우유 생산량의 40.5%를 차지함²²⁾

초국적 기업, 상위 3개 수입국이 독식하고 있는 시장

- 또한, 인도의 경우, Nestle, Danone와 같은 유럽기반 초국적 식료품 기업들이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세계 유제품 주요 수출국이 최근 가뭄과 홍수로 인해 원활한 유제품 생산을 하지 않아 세계시장에서 인도의 입지가 상승함
- 상위 3개 수입국(태국, 싱가포르, 네덜란드)이 전체 시장을 거의 독식하고 있음
- 유명한 브랜드는 경쟁력 있는 가격, 발달과정에 맞춘 분유 등을 내세워서 영유아 조제유 시장을 포섭하고 있음

수출 확대 방안

프리미엄 제품 전략

- 현재 생산 제품, 그리고 초국적이 기업 제품들과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는 것은 어려워 보임
- 다만 인도 시장에서 초코파이의 성공처럼 산양유가 기존 시장의 분유와 다른 점을 부각하며 고급화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온라인/오프라인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온라인 채널은 중산층 이상, 도시거주자를 상대로 꾸준히 성장중임. 온라인 식료품 사이트, 유아용품 사이트 등을 통해 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2) Farminsight, “세계 최대 우유 생산국인 인도가 8년만에 유제품 연간 수출액이 5억달러를 넘어섰다” 2022.04. <http://www.farminsight.net/news/articleView.html?idxno=7409>

참고문헌



□ 참고 사이트

1. Euromonitor International
2. ITC
3. KATI농식품수출정보
4. Business Insider
5. 2019 주요 수출대상국의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조사 [인도 규정해설집]
6. Statista
7. Amazon Fresh(www.amazon.in)
8. Dmart(www.dmartindia.com)
9. Flipkart(www.flipkart.com)
10. Bigbasket(www.bigbasket.com)
11. Reliance Smart(www.reliancesmart.in)

□ 참고 사이트

1. 팜인사이트, “세계 최대 우유 생산국인 인도가 8년만에 유제품 연간 수출액이 5억달러를 넘어섰다”, 2022.04

수출기업 맞춤형 조사

발행 겸 편집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발행일자 2022. 12

- 본 보고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무단전재 및 재배포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습니다.
- 본문 내용 중 문의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